

# “전남 드론산업, 기반 미흡하지만 경쟁력 충분”

### 항공우주연 “관련산업 특화됐고 비행시험 공역 보유”

### 전국 대비 연구개발비 1.1%, 개발인력 1.2% 불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전남 드론산업(무인기)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항우연(연구책임자 정기훈)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의뢰받은 ‘전남 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 기획 연구’ 중간 보고서에서 “전남의 무인항공기 연구 개발비와 기관은 전국과 비교해 미흡하지만, 관련 산업이 특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우연은 “전남의 무인항공기 연구개발비는 2009년 3898억원에서 2013년 6456억원으로 연평균 13.5% 증가했으나 전국 대비 1.1%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13위로 나타났다”며 “연구개발에 대한 수탁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항우연은 이어 “전남의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조직은 2013년 기준으로 381개로 전국 2만7589개의 1.4%에 불과하고 연구개발인력도 6832명으로 전국 56만9000여

명의 1.2%에 그쳤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그러나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플라스틱 제품·구조용 금속제품·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의 지역 내 비중이 2.9~5.1%에 달하고 성장성도 있는 등 관련 산업이 비교적 특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무인기산업을 견인하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우연은 “따라서 전남도는 고출력 간척지의 항공센터를 포함한 국내 최고조건의 비행시험 공역을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인력양성, 시험 인프라 확충,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해 항공·무인기 산업 및 활용 산업의 육성을 지속적

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우연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연평균 17.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군수 분야가 25억3000만달러 규모로 전체 무인기 시장 추정치 44억5000만달러의 약 57%를 차지한다.

군수·민수(민간수요) 비율은 2015년 57대43에서 2019년에는 47대53으로 민수시장이 증가하고 2024년에는 경기 둔화로 민간분야 감소가 예상된다는 일부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60대40으로 군수시장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정부 폐광정책 철회하라”

### 민병홍 전남도의원 촉구

전남도의회 민병홍(화순2,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전라남도의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폐광정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화순광업소가 폐광하면 6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0여명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1년 집행 예산이 550억 원으로 화순 지역경제는 물론 광주 동·남구지역 상권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폐광정책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만성적 지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업소 폐광 운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지방재정 개편 반대 단식 농성

채인석 화성시장(가운데)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편 반대관련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반환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 쓰레기 봉투값 광양이 구례의 4배

###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따라 결정 ‘천차만별’

전남 도내 각 시·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량제 봉투가격이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지역은 광양인 반면 곡성은 다른 자치구보다 매우 싼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가정용 5ℓ 종량제 봉투가격의 경우 곡성에선 50원에 판매됐지만 여수에선 3배 가까운 140원이었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20ℓ 짜리 봉투가격도 차이가 컸다. 가장 저렴한 곡성은 도내 평균가격

299원보다 적은 160원에 불과했지만 가장 비싼 광양은 이보다 231.25% 비싼 530원이었다. 여수와 해남도 각각 500원·430원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비쌌다.

10ℓ 봉투의 경우도 곡성은 90원이었지만 여수는 이보다 188.88% 비싼 260원이었다. 여수가 250원, 목포·해남이 210원, 화순이 190원으로 뒤를 이었다.

50ℓ 봉투는 광양이 1300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어 ▲여수 1200원 ▲해남 1050원 ▲목포 990원 ▲화순 920원 ▲순

천 85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저렴한 지역은 곡성으로 390원이었다. 고흥이 410원, 함평이 530원, 구례·신안이 540원으로 뒤를 이었다. 100ℓ 봉투 가격도 광양이 2600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곡성은 이보다 242.10% 싼 760원이었다.

도내 각 시군 ℓ 별 평균 가격은 82원(5ℓ)·160원(10ℓ)·340원(20ℓ)·910원(50ℓ)·1595원(100ℓ)이다.

이 같이 각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자치구별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봉투제작비용과 함께 청소대행업체 및 봉투판매업소의

이윤, 소각·매립비용 등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봉투가격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도내 평균가격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싼 동네에 사는 주민은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각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 등 여건을 감안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편차를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쓰레기의 소각·매립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봉투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서 “봉투가격이 싼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소각·매립 비용 등을 자치구 예산에서 지원하지만 다른 지역은 봉투가격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광주 110개 학교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시-교육청-한전KPS 협약

### 주민 반발로 갈등 우려도

광주 일선 학교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7일 한전KPS, 광주시교육청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인허가 취득 등 행정지원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한전KPS는 수익금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교육청은 부지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300여개 학교 중 1996년 이후 설립한 공립학교 110곳이 우선 대상이다.

170억원을 들여 모두 10MW 규모로 설치하며 우선 1단계로 12곳(2MW)에 시설할 계획이다. 반응이 좋으면 사립학교도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 KPS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에너지 사업육성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신재생에너지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옥상 등 유휴부지를 수익사업 모델로 개발해 학교발전기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와 교육청은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등 민원발생 최소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공립학교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지역 내 들어서면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학교 옥상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시설로 인한 주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도 크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학교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역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역의 역할을 결집해내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소득숲·경관숲 조성 전남 가치 높인다

### 나무 887만그루 심어

### 올해 목표 80% 달성

전남도가 관광자원과 소득 창출 등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득숲·경관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지역 관광자원과 소득창출에 활용가능한 편백·황철·후박·녹나무 등 887만 그루와 꽃 217만 그루를 심었다. 이는 올해 목표인 1100만 그루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남도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 2년차인 올해 지역 자원과 역사, 이슈를 반영한 의미 있는 숲을 조성하고 황철·동백·호두 등 비교우위 자원 규모화·단지화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영광 흥농~여수 둔덕 구간을 중심으로 바닷길·마을길·갯길 등에 경관과 역사·문화를 반영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히 올해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광·강진 등 6개 시군에 총 43km 구간에 명품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흥 관산 정남진 일원 간척지 유휴토지에는 300ha 규모의 다목적 숲이 들어선다.

비교우위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년간 황철(750ha)·동백(184ha)·호두(164ha)를 조성했는데, 2024년까지 해남·완도·강진 등 남해안 지역에 황철 특화숲(4000ha), 영광·장흥·담양에 800ha의 견과류 웰빙숲(800ha)을, 완도·해남에 동백숲(1000ha)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golee@

## 전남도 섬주민 대상 ‘찾아가는 치매 검진센터’ 운영

전남도와 광역정신건강센터·광역치매센터가 섬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정신·치매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흥·우도·죽도 등 8개지역 섬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치매 이동검진’을 실시한다.

전남도는 8월 완도 백일도·흑일도를 시작으로 고흥 우도(15일) 등을 연이어 방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섬지역 기상

여건과 병원선 출항일정 등을 감안 신안 장병도·대하도, 해남 상마도·하마도를 찾는다. 이번 이동검진센터 운영은 전남도가 지난 3월 치매 극복을 위해 수립한 ‘2016 치매예방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섬지역 주민들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와 치매조기 인지조사, 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의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 밝은광주안과 의원

# ICL(안내렌즈삽입술)

### ICL이란?

ICL(Implantable Contact Lens-안내삽입콘택트렌즈)수술이란 고도근시 및 원시의 시력교정을 위해 개발된 시력교정수술로 각막은 그대로 보전한 채 특수 고안된 렌즈를 수정체 앞에 삽입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각막두께가 얇거나 심한 안구건조증 또는 각막질환으로 인해 라식, 라섹이 어려운 경우 ICL수술로 시력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 렌즈삽입술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신 설비를 갖춘 전문 병원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안전 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미일/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밝은광주안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 진료내용

#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직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